



창세기 강해



# 사라의 죽음

(23장 1 ~ 20절)

이종운 목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경건의 상징처럼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만인의 어머니 되었습니다. 사라는 분명 기억될만한 신앙의 본을 보인 일생을 살았지만 그에게도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생일찌라도 아담의 후예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죄인이며,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녀의 일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백 이십 칠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감하는 사라는 순례길을 걸은 아브라함의 동행자로 그를 기쁘게 했고 남편이 절망과 고통에 처하면 위로하여 다시 힘을 얻게 한 훌륭한 신앙의 반려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며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히11:11 - 14). 육십년간 아브라함과 동고동락하며 영적 자녀들에게 결혼생활에 있어서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태도를 보며 죽은 자 앞에서 산자의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1. 슬퍼하며 애곡한 아브라함

성경의 초점은 죽은 사라가 아닌 살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곡하다가..." (2절)라는 짧은 구절 안에는 여러가지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과연 애곡을 해도 좋으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불신앙이라고 여기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 앞에서 울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가 울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곡한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원수라고 했습니다(고전 15:26). 죽음은 분명 죄가 가져다준 무서운 형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이를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나볼 수 없도록 갈라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별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교훈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슬픔을 당한 유족을 위로하는 일을 잊어서

는 안될 것입니다.

## 2. 일하기 위해 나서는 아브라함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할 때 잠시 슬픔을 경험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슬픔에 빠져 거기서 헤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학가는 가족이 있다면 떨어져 있어야 하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릴 수는 있으나 대성통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때문에 슬픔에 빠져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묘지를 구하기 위해 헛 족속을 찾아갑니다. 그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할 줄 아는 균형잡힌 인격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강요하거나 무례한 부탁을 하지 않고 예절을 지키며 지혜롭고 이성적인 자세로 아내의 매장지를 허락받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사람(빌2:3 참조)이었습니다. 천국시민인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합당한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질서대로 행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협상이나 타협을 거부합니다. 타협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저 주겠다는 제안을 받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치룹니다. 잠언 말씀에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잠20:14)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이고 속는 것이 인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보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우리는 천국시민다운 성숙한 의식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조심성있게 행했습니다. 헛 족속이 듣는 데서 은 사백 세겔을 지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 때에 분명하고도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합니다.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찌니라" (잠24:27).

## 3. 아브라함의 소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고 하였고 그 후에 막벨라 동굴은 아브라함의 가족묘가 되었습니다. 후에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그곳에 묻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소망은 가나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 너머의 세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무덤을 구하며 그는 스스로 "나그네(alien)요 우거하는 자(stranger)"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결코 이 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고(레 25:23),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대상29:14).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을 살다가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늘나라로 간 사람을 보며 이별의 슬픔에 울 수는 있어도 절망적인 울음을 울지는 않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되 우리는 언제나 순례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순례자 컬럼 ✦

### "우리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위해 가난을 택하셨으며  
우리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나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겪으신 수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옵소서.  
증오와 질투로부터,  
진리의 냉정함과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오 거룩한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사 온유하고 겸손하게  
제 뒤편 태인 십자가 등에 지고 가게 하소서.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유혹의 순간에서, 시련의 암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 '95 홍해작전 행진일기

■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 “서로의 응원에 피곤을 잊고”

H 집사 (11교구, 찬양대원)

집안을 정리하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한 후 내가 받은 몇 장의 기도요청카드를 들여다 보며 기도를 부탁한 이

들의 얼굴과 그들의 영적인 필요들을 떠올려본다. 이제부터는 기도카드를 모아두어야겠다. 그래서 기도카드에 적힌 기도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마다 감사기도를 드리려고 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나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9-12절 말씀)

오늘은 홍해작전 행진 6일째. 행진의 대열에 함께 한 기도 친구들의 응원을 생각하니 힘이 솟는다.

새벽 3시 30분. 맞추어놓은 시계의 요란한 벨 소리에 간신히 눈을 떴으나 '5분만 더 누워있는데는' 다시 눈

떠보니 4시였다. 이게 웬일인가. 그야말로 질풍과 같이 달려가 간신히 찬양대 연습실에 도달하니 괜실히 비실비실 웃음이 나왔다. 마음의 간절한 원(願)에 비해 내 육신은 왜 이리도 약한지... 밤에는 얼마든지 늦게 자했는데 아침잠이 많은 나에게 새벽기도란 언제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친구 두명과 김치세미나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와 홍해작전 새벽기도회 찬양대에 함께 서기로 한 약속이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다. 그 중 한 친구인 Y는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체력이 약해서 예년의 홍해작전 때마다 동참하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울상을 짓던 Y는 또 다른 한 친구의 반협박(?)조의 권면으로 올해에는 참석하기로 결단했고, 지금은 승리의 여망이 보인다며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있다. 나 역시 온 교회가 힘을 합하는 홍해작전이 아니면 일년 내내 새벽기도 한 번 못해볼지도 모른다.

보는 시각에 따라 홍해작전의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의지박약한 내게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

면 진정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홍해작전을 처음 시작하던 해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그 해엔 날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고, 그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도 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받고도 알지 못하던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어느 해인가는 홍해작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주신 일도 있다. 새벽마다 교통편 때문에 곤란을 겪으며 '이럴 때 차만 있으면 다락방 식구들 다 태워드리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예기치 않았던 손길을 통해 자동차를 주셔서 그 해 홍해작전 기간 동안은 여럿이 그 혜택을 누렸다.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것이다.

어제는 같이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한 자매로부터 기도제목이 적힌 카드를 받았다. 그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제목을 두고 나 혼자서 기도하기도 하고, 낮에는 전화 통화를 하며 함께 교제하면서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을 드리기도 했다.

오늘도 가족들이 일터로, 학교로 나간 후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장 19, 20절)

■ 먼 곳에서 달려와보니

###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오 선혜

결단하고 간구할 것이 조목조목 생각나 기도하고 있다. 정말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기에 나에게, 우리교회와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실한 것들임을 느끼며.

특히 우리 가족은 이번 홍해작전을 통해 우리 교회의 새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터를 하나님께서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다.

한 미국 선생님의 “한국이 교회가 급성장하는

것은 그들이 많은 기도모임을 갖고, 기도를 쉬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본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새벽기도회. 외국인들이 놀라며 배워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 유익을 체험하여 알고 있는데 이번 홍해작전 기간동안만이라도 서울교회 가족 모두가 새벽기도회에 차고 넘치게 참여해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맛보아야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은혜 주시려고 멀리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 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나는 이번 여름방학을 그곳에서 머물며 공부하면서 지내려고 3, 4개월 전부터 여름학교(Summer School)와 캠프 등을 알아보고 준비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방학이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돌아오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사실상 계획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자 마음의 갈등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큰 기도제목들을 주셨고, 한국에 오기 전 얼마간 수요일마다 기도모임에 참석하면서 내 모습을 새롭게 돌아보게 되었다. 어디가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려고 결심했으면서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의 중요성이 내 생활에서 축소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늦게 홍해작전의 행군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해마다 6월 6일이면 시작하는 특별새벽기도회가 올해는 유난히도 각별하고 귀한 기회로 여겨진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벌써 내 곁에서 기도하고픈 열정을 불러 넣어 주시고, 이미 홍해작전 은혜의 자리에 참석케 하시려고 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것 같다.

“영적 각성과 창조질서의 회복”이라는 올해의 주제를 보는 순간, 내 개인적인 기도제목 뿐 아니라 유학 후 잠깐씩 한국에 나올 때마다 느꼈던 것들을 놓고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 특별히 십대들과 젊은 사람들의 문제들이 떠올려졌다. 이번 홍해작전 기간동안 기도해야 할 일곱가지 제목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야 할 것, 부족한 것,

#### 원고를 모집합니다.

홍해작전 기간 중에 받은 은혜를함께 나누시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 실패 그러나 새로운 각오 등  
원고의 제출 및 문외는 순례자의 편집을 지도하시는 장유희 목사님께  
☎ 517 - 7651(교회), Fax 516 - 9641(순례자 편집실)

# 남기고 싶은 이야기



## - KIMCHI 신학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

제 6차 김치신학세미나 수료감사예배를 마친 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 온 31명의 참가자들에게 소감을 물었다.

열흘간 진행된 세미나의 이모저모를 볼 수 있는 사진들과 함께 목회자들의 소감을 요약하여 게재해 본다.



교회 성장의 성경적 원리, 한국교회사, 사회적 관심과 전도, 다락방 운동과 교회 성장, 신학교육 등의 내용을 다룬 강의와 강사에 대해 참석자들은 매우 만족해 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근거한 모든 강의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강의에 이어 열면 토론의 시간을 갖고 자국목음화를 위한 적용점을 모색하는 데에 주력했다.

“김치 신학세미나는 강사 선정에 서이주 훌륭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운영과 진행면에서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매우 큰 짐을 지고 갑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서울교회는 이상적인 지도자를 모신 이상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하고 나누려는 정신은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같이 균형잡힌 세미나를 우리나라에서도 열어야 하리라는 도전과 함께 큰 비전을 받았 습니다.”

“세계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제 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김치신학 세미나는 세계선교전략 중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의 교회와 영적인 축복을 나누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기회에 신학적면 뿐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 교회성장의 원리를 배우게 된 것은 큰 복이었습니다.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너무도 완벽한 감동적이고도 실제적인 공부였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얼마나 강조 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여 기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는 생활을 해야겠 다고 결심했습니다. 공항세가 너무 비싸서 가난한 우리로서는 그 부담 조차 덜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주의적 신학에의 입장과 전 도에 대한 열심을 우리나라에도 불 을 붙여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성령충만한 모 습과 헌신적인 사랑의 봉사가 무척 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도시간 을 좀더 길게 가질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새벽기도회와 흥 해작전이었습니다. 세미나는 전반 적으로 깊이있는 신학과 실제적인 적용이 균형있게 짜여졌다고 여겨 집니다. 다락방 모임에 참관하여 배 운 것 또한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모 든 것이 다 좋았지만 자국의 지도자 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무엇을 캐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었다는 생각 이 듭니다.”

“다락방 모임은 우리 나라에 가 서 즉시 시행하려고 합니다. 새벽기 도회 역시 힘써 보겠습니다. 쇼핑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셨더라면 좋았겠습니다.”

“김치는 제게 참으로 복된 기회였 습니다. 제 목회에 새로운 비전과 활 력이 되었으며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 도 우리나라에서 네비우스 방법(자 력전도, 자치제도, 자금운영의 체계) 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 자신은 물론 우리나라 교회 부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

##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들끼리도 여기에 와서 처음 만난 경우가 많은데 그들과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어야만 했다고 봅니다. 자국 목회자들 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한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열정적인 기도생활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가 새벽기도회, 특히 홍해작전을 시행해야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큰 격려가 되었고, 비전을 받았습니다.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제게 새로운 비전과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잠자던 영혼을 흔들어깨워 제 조국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배우고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충실하게 준비된 강의노트가 매우 유용합니다만 그와 관련된 책들도 제공받을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조직된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여 기도로 후원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보여준 좋은 본이라 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없었던 것이 유감입니다.”

“모든 강사들이 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 잘 무장된 이들이었으며 서울교회 성도들의 사려깊은 친절과 경건에 힘쓰는 자세는 정말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목사님의 설교와 목회 철학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환란 속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번 세미나는 큰 위로요 격려며 백만대군을 얻게 된 기쁨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과의 개인적인 면담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매우 훌륭한 강사진과 실제적인 내용이면서도 학문적으로 정리된 강의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정된 좌석이 고정적인 것은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특

히 제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나태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다시 복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저와 저희 민족에게 커다란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세미나의 조직, 운영, 내용 모두가 훌륭했습니다. 시간관리를 철저히 하심으로써 무척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열흘 중 하루쯤은 자유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김치세미나는 가장 이상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 생활을 온 세계 교회가

가장 인상깊게 받아들이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이었다. 산상기도와 새벽기도회를 거의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디가서나 앉자 마자 기도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습관을 경이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참가자들은 새벽기도회와 홍해작전을 자국복음화를 위한 최우선의 전략으로 삼았고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이를 시행하겠다는 결단을 했다.

외부의 원조보다는 기도의 힘으로, 자력으로 복음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갔다.

#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지난 금요일 저녁 다락방모임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성도의 가정에서도 다락방모임을 갖고 교제하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YMCA대강당을 가득 메운 목회자세미나 현장을 둘러보며 김치 신학세미나의 유익을 초청받은 참가만이 아니라 한 나라전체의 목회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김치의 강사진이 외국에 와서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왔다.

한국에 복주시 하나님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자국 복음화를 위한 전략회의를 진지하게 가졌다.

모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세미나를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정기적으로 열어서 목회자들의 영적인 갱신과 교회 성장에 활력을 부여 줄 수만 있다면 세계복음화가 앞당겨 질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흥했으며 헌신적이고 진지함이 있는 교회임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기도생활, 전도의 생활을 강조하며 구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은 인상적이었고 이를 보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있는 서울교회가 더욱 힘써서 더 많은 결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번 세미

나에서 받은 영적인 복들을 저희나라에 가서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형제들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위해 기도해 주신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세미나는 아주 훌륭하게 조직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성경적이며 실제적인 강의, 특히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감사했고 또 우리도 이를 배우려 합니다. 다만 모슬렘 교도들에 대한 전도전략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아쉽고, 가르쳐 주신 많은 성경적 원리들을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충분히 소화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의 전체가 효과적이고 자국복음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했다고 봅니다. 새벽기도회는 정말 흥분할만한 경험이었습니다. 다락방 모임에서 듣고 본 것 역시 저희에게는 잊을 수 없는 큰 자극제 였습니다. 상대국의 교회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잠자던 저를 깨웠고 따라서 이 경험은 저희 나라의 교회를 깨우는 복소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프로그램과 새벽기도회는 제게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었고 영적 진보의 계기가 되었으며 더 넓고 큰 비전을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종윤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의 인격과 지식, 비전에 대해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치세미나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남기고 싶은 이야기



“교회학교 조직과 운영, 다락방 모임을 통한 성도의 교제는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치세미나를 파키스탄 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개최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운동이 저희나라 교회에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식사 후 개인적인 시간이 있어서 참가자들과의 자유로운 교제와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김치세미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의 선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상기도회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는 생활, 섬기는 생활을 통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하려고 애쓰는 서울교회는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모음과 나눔의 장』을 찾은 목회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베푼 자에게 약속된 상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기원하였다.



“성장하는 한국교회를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새벽기도회, 산상기도회가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훈련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시간 회중들의 큰 찬송소리는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힘을 이제 이슬람권에 쏟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한국 침투 또한 쉽게 보지 마시고 초기에 막는 전법을 한국 교회들은 연구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 재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는 이라면 김치신학세미나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개신연구원을 통해 월요일마다 공부하며 영적인 재충전을 받는 목회자들이 YMCA 대강당을

을 가득 메운 것을 보며 저희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10년 이상 목회 경력을 가진 제 3세계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서울교회 김치신학세미나를 통해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인줄 믿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초교파적이고 국제적인 이 세미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이들의 겸손한 섬김의 자세로 저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한국교회, 아니 서울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짧은 교회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품어 안은 놀라운 교회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 바랍니다.”

수료식에서 답사를 한 우딘 목사는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모두 만날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현명하게 잘 감당하자고 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지체임을 확인하고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을 증거하리라고 다짐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든이들에게 감사하는 말 끝에 이슬람의 한국침투를 조심하고, 한국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더 겸손히 받은 것을 많이 나누라는 말을 덧붙였다.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하다는데 그렇게 치면 내 생전 강산이 아홉번 변한 것이지요.”

나이를 잊고 사신다는 조범식 집사님께서서는 1906년 4월 29일, 충남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 올해로 90세가 되신 것.

이옥현 권사님과 사이에 3남 1녀를 두셨는데 이제 5는 자손들이 다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고 3인 막내 손주의 진로문제가 가장 큰 기도제목이라신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옥현 권사님의 권유로 71세가 되시던 1977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는 조집사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만나신 후부터 늘 기쁨 마음과 소망을 가진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온 가족이 섬기는 교회는 각기 다르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신다.

예전에는 강산이 변하는 속도가 10년 정도 걸렸는지 모르나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정신이 없다시며, “그래서 날마다 신문보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고 하신다. 자주 바뀌는 현대적인 어투와 맞춤법은 손녀로부터 배우고, 일본어와 한자에 관해서는

■ 순례 길에 만난 사람  
**90회 생신을 지나신 조범식 집사님**  
**“강산이 아홉번 변했습니다.”**



손녀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리만큼 확실하게 지도하시면서 세대를 뛰어넘는 대화를 하고 계신다. 두루마기까지 차려입고 매일같이 어른들께 새벽문안 인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던 예전에 비하면 지금의 젊은이들은 다소 예의가 없어보이지만 지적하고 가르쳐주시는 데서 그치시고 절대 강요하지는 않으신다고.

아흔 해를 사셨음에도 젊은이들 편에서서 그들을 이해하려 하시고 또렷한 말투와 건강하신 생활 전체가 어느 청년 못지않았다. 이 권사님 말씀에 따르면 결혼 후 소확불량에 걸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시니 워낙 건강한 체질을 소유하시기도 하셨지만 “겸손, 인내, 사랑”을 항상 강조하시며, 젊어서도 절제하고 탈선 없었던 조 집사님의 생활태도가 강건함의 비결인 것 같다신다.

인생이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 하셨으나 이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여생을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돌리다가 고요히 주님 앞에 가시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셨다.

농어촌 106개 자매교회 목회자 초청 세미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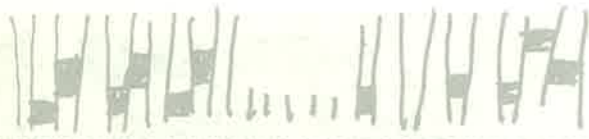
19일(월)에 개최

전도위원회에서는 오는 19일(월)에 현재 우리교회와 결연한 농어촌 106개 교회의 목회자를 초청,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의 말씀을 주제로 예배와 특강, 식사와 교제, 그리고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교회는 작년 설립 3주년 기념일을 기하여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지원운동>을 펴기로 결정하고 이 일을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성도들의 호응으로 100교회를 넘어서서 현재 106개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후원상황을 보면, 남선교회가 20개 교회, 여진도회가 29개 교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개인 혹은 가정 단위로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55개, 다락방에서 8개 교회, 교회학교에서 3개 교회, 그리고 찬양대에서 한곳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개월간 펼쳐온 <100교회 운동>을 점검해 보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관을 가지고 전국 교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민족복음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학습 · 세례식**

21일(수) I, II부 예배 시

1995년도 제 3차 학습 · 세례식을 21일(수) I, II부 예배 시에 거행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9일(월) 오후 7시에 2층에서, 문답은 20일(화) 오후 7시에 4층에서 한다.



재활용 가능한 의류들을 모아 나누는 『모임과 나눔의 장』은 이들과의 짧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4층 대학부실에 가득 진열할 만큼의 성공적인 『모임』이 이루어졌다. 『나눔』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실시했으며, 농어촌 교회 목회자세미나가 열리는 오는 19일이 두번째 『나눔』의 날이 될 예정이다. 그 후에 성도들끼리 나누는 기회도 마련될 것이다. 의류 외에 신변잡화, 구두, 주방용품 및 일상생활에 쓰이는 모든 생필품들도 『모임과 나눔』이 가능하다.

■ **이중문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흥해작전을 통해 개인이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2. 국내외 목회자들의 성령충만을 위하여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